

지속가능성 보고서 한영번역의 번역보편소 양상 고찰

임 진
(이화여대)

1. 서론

전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와 함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대한 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외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를 앞다투어 발간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UN 협력기구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¹⁾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공공, 민간기업이 자신들의 기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사회적 책임에 대해 어떠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발간하는 비재무, 정기 보고서이다. 최근 GRI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를 아예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통합하여 발간하는 통합보고(Integrated Reporting, IIRC 2013)가 확산되고, 한국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

1) <https://www.globalreporting.org/Pages/default.aspx>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기재,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²⁾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연차보고서의 기능을 겸하는 대표적 기업보고 장르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관행에서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투자자, 소비자 등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접근하는 자료이자(Bedard et al. 2012), 전문가의 투자종목 추천에 영향을 미치는(Breton & Taffler 2001) 연차보고서의 재무적 중요성과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영향을 미치는(Kim et al. 2017) 종전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역할을 겸하는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외국인 투자의 증가로 인해³⁾ 기업보고서 번역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 번역문은 외국인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제도번역(Koskinen 2008)으로, 원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원문이 가지는 중요성을 목표언어 독자에게 설득력 있고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은 외국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활동 및 투자유치에 매우 중요하다.

그 중요성 탓에 한국어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영어 방향 번역은 주로 통번역 전문 교육을 받은 통번역사가 수행하는데, 소수언어인 한국어의 특성 상 주로 외국어 방향의 번역, 즉 AB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다.⁴⁾ 외국어 방향으로의 번역에서는 종종 번역투나 자연스럽지 못한 결과물, 다양한 표현 구사력이 떨어지는 단조로운 텍스트가 문제로 지적된다(정호정 2003: 62). 이는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의도하는 의사소통 목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학문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번역문과 비번역문 간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온 번역보편소(Translation Universals)를 분석 틀로 채택하여 기업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이사 서한(Bartlett & Chandler 1997; Mobasher et al. 2013)의 번역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 기업이 작성하여 영어로 번역한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대표이사 서한과 미국기

2) 김성휘 (2017년 3월 23일) 머니투데이.

3) 2019년 9월 11일 현재 국내 상장사 외국인 지분율은 시가총액의 34.4%(한국거래소, <http://marketdata.krx.co.kr/mdi#document=13020403>)이다.

4) 정확한 집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전문 통번역교육을 받은 통번역사들의 SNS 및 대면 조사 결과 대다수가 외국어 방향으로 기업보고서 번역/감수를 수행하고 있었다.

업이 원래 영어로 작성한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대표이사 서한을 수집하여 소규모(micro) 공시적(synchronic)⁵⁾ 비교(comparable, 번역문-비번역문), 병렬(parallel, 원문-번역문) 코퍼스⁶⁾를 구축하여 양적, 질적 분석을 실시, 번역보편소 가설이 본고의 연구대상에 적용되는지라는 연구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를 매개로 한 번역보편소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미진한 기업보고 장르의 한영 번역 양상을 고찰하여 기존 연구의 외연을 넓히고 번역문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한다. 둘째, 번역 수요가 높은 실제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한영 번역 교육 및 실무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도출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번역보편소

번역보편소란 번역 과정에 개입된 언어 쌍에 관계없이 번역문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특성을 뜻한다(Baker 1993: 243). 번역문은 원문과도 비번역문과도 다른 “제3의 기호(the third code)”(Frawley 1984: 168)에 비유되곤 했다. 번역문과 비번역문 간의 차이점은 주로 출발어에서 목표어로 번역된 번역문과 번역되지 않고 원래 목표어로 작성된 비번역문으로 된 단일어 비교코퍼스 분석을 통해 연구가 이루어졌다.

번역문의 특징으로 일컬어지는 번역보편소 가설 범주로 가장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온 것은 명시화(explicitation), 단순화(simplification), 규범화(normalization), 평준화(levelling out)의 네 가지이다(Baker 1996; Laviosa 2002; Olohan 2004).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범주와 정의가 존재하지만,⁷⁾ 본고에서는

-
- 5) 제한된 기간 안에 생산된 텍스트를 포함하는 코퍼스(Laviosa 2002: 35)를 의미한다.
 6) 비교코퍼스의 정의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본고에서는 텍스트의 장르, 주제, 시기 등이 유사하게 구성된 단일어 번역, 비번역 텍스트로 된 코퍼스(Laviosa 2002: 36; Olohan, 2004: 35)를 뜻한다.
 7) 이 외에 출발어 영향이 도착어에 나타나는 비침(shining-through, Teich 2003), 투리(Toury 1995: 267-68)의 표준화 증가의 법칙(law of growing standardization), 원문

다양한 번역보편소 범주 중 선행연구와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영번역과 관련된 실증연구에서 주로 채택되어 온 베이커(1996)의 네 가지 범주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명시화란 번역가가 번역 과정에서 원문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정보를 목표텍스트에 추가하여(Baker 1996) 번역문에서 의미가 더 명확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원문에 없는 접속부사를 추가하여 목표 텍스트의 표층결속성(cohesion)이 강화되는 현상 등에 대해 다수의 실증적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Toury 1995; Klaudy 1996; Olohan 1996; Øverås 1998; Olohan & Baker 2000; Blum-Kulka 2004; Pym 2005; Xiao 2010; Xiao & Dai 2014; Feng, Crezee & Grant 2018; Kajzer-Wietrzny 2018 등).

블룸쿨카와 레벤스톤(Blum-Kulka & Levenston 1978)이 번역문에 나타나는 어휘가 비번역문보다 적은 수의 단어로 구성됨을 입증하며 최초로 개념화한 단순화는 베이커(1996: 176)에 의해 “번역가가 언어, 메시지, 또는 둘 다를 무의식적으로 단순화한다는 개념”으로 구체화되었다. 번역문의 경우 어휘다양성(STTR)⁸⁾이 낮고, 기능어(function words) 대비 내용어(lexical words) 비율인 어휘밀도(lexical density)가 낮으며, 고빈도 어휘의 비중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Baker 1995; Toury 1995; Laviosa-Braithwaite 1996; Laviosa 1997/1998; Malmkjær 1997; Xiao 2010; Kajzer-Wietrzny 2015; Feng, Crezee & Grant 2018 등).

규범화란 원문에 나타난 텍스트 고유의 특징을 목표언어의 언어와 문화 규범에 맞게 조절하는 작용으로 인해 보통 목표어에 나타나는 특징이 과도하게 번역문에 드러나는 현상을 뜻한다(Baker 1996: 183). 주로 목표어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문법적 구조나 문장부호, 구어적 언어사용 양상이나 상투어(cliché), 어휘묶음⁹⁾이 비번역문에 비해 과다사용(overrepresentation)되는 현상으로, 이에

간섭의 법칙(law of interference), 목표어 중 출발어에 존재하지 않는 특징이 번역문에서 과소사용되는 특수소(unique items, Trikkonen-Condit 2004) 등이 있다. 체스터만(Chesterman 2004: 39; 2010: 40)은 번역문과 출발텍스트와의 차이를 S-보편소, 도찰텍스트와의 차이를 T-보편소를 구분하기도 한다.

8) 타입-토큰 비율(type-token ratio)란 어휘 유형수를 총 단어수로 나눈 평균치로, 텍스트 크기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1,000단어마다 나눠 타입-토큰 비율을 계산한 후 그 비율의 평균치를 구하게 되는데 이를 STTR(standard type-token ratio)라고 한다(이창수 2014b: 137).

대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Toury 1995; Baker 1996; Kenny 1998; Mauranen 2000; Teich 2003; Hansen-Schirra 2011 등).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목표문화에 대한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아 번역문에서 일부 항목이 과소사용(underrepresentation)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특히 구어적 축어를 나타내는 문장 부호의 경우 번역문에서 과소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Olohan 2003; 2004).

마지막으로 평준화란 개별 번역문들이 비번역문들에 비해 더 높은 유사성을 띄는 현상이다. 목표언어에 의존적인 규범화와 달리 평준화는 출발어와 도착어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고 두 양극단의 중간에 수렴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Baker 1996: 184). 코퍼스 툴의 통계량인 STTR, 평균문장길이 등의 표준편차를 계산, 비교하는 방법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Laviosa-Braithwaite 1996; Laviosa 1998 등).

이와 같이 번역보편소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주로 영어와 유럽어 간 번역에 집중되었고 장르 또한 문학, 특히 소설에 국한되어 있다(고광윤 & 이영희 2016: 110). 국내 번역보편소에 대한 연구의 경우 주로 영어에서 한국어 방향으로의 번역, 문학 장르에 집중되어 있다. 번역보편소 양상 또한 텍스트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김정우 2015; 김혜영 2009) 본고의 연구대상과 같이 한영 방향의 상업번역에서의 양상 고찰은 의미가 있다. <표 1>은 기존 한영 번역 연구에서 밝혀진 번역보편소 양상으로, 본고의 분석범주는 이를 기반으로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방법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표 1> 한영 번역에 대한 번역보편소 선행연구

보편소	번역문에 나타난 양상	실증연구
명시화	접속부사 비중이 높음	이창수(2014a); Gho et al.(2016); 고광윤 & 이영희(2016); 최희경(2016); Lee(2016/2018) ¹⁰⁾
	전달동사 뒤 That 빈도가 높음	Park & Lee(2014); 이창수(2014a); 최희경(2016)
단순화	낮은 STTR	Gho et al.(2016);

9) 어휘묶음(lexical bundles)은 코퍼스 툴에서 제공하는 엔그램(N-Gram)을 추출한 다음 분석, 비교하여 차이를 규명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이창수 2011: 321-22). 여기서 N은 연속되는 어휘의 숫자를 뜻한다.

		고광윤 & 이영희(2016); Lee(2016/2018)
	기능어 비중이 높음	Lee(2016/2018)
	평균문장길이가 짧음	고광윤 & 이영희(2016); Lee(2016/2018)
	고빈도 어휘 비중 높음	고광윤 & 이영희(2016); Lee(2016/2018)
규범화 (또는 보수화)	고빈도 어휘덩어리(lexical bundles) 비중이 높음	Gho et al.(2016); 고광윤 & 이영희(2016); Lee(2016/2018); 최희경(2016)
평준화	STTR/평균문장길이의 표준편차가 낮음	Gho et al.(2016); Lee(2016/2018)

2.2 번역보편소에 대한 비판과 의의

코퍼스를 활용한 번역보편소 연구는 분명 번역 과정에서 나타나는 언어 현상을 설명해주는 데는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첫째, 번역보편소의 보편성에 대한 논란이다. 번역보편소의 각 가설이 서로 다른 언어 쌍, 텍스트 장르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실증연구가 다수 존재하므로, 여기에 보편소의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예를 들어, 번역보편소의 단순화 가설 범주 중 어휘적 다양성과 문장 길이(이창수 2014a; 김혜영 2015), 표준화의 STTR, 평균문장길이의 표준편차(고광윤 & 이영희 2016)의 경우 장르 간 차이가 존재하여 보편적 지표로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번역은 언어의 작용이기에 일반 언어의 보편적 법칙이 번역에도 적용되는 것일 뿐이므로 번역에서 특정 보편소를 찾고자 하는 노력은 쓸모가 없다(House 2008: 6)는 견해도 있다.

둘째, 번역보편소의 범주 논란이다. 베처(Becher 2010/2011)는 번역보편소 가설의 범주에 문제를 제기하며, 특히 명시화 가설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범주에 대한 문제제기는 영한 번역의 보편소에 대한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김정우 2016).

셋째, 번역보편소 연구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온 양적 연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번역 연구에서 코퍼스를 구축, 활용하는 목적은 번역에서 의

10) 리(Lee 2016/2018)의 경우 번역 과정을 거친 텍스트가 아니라 한국어가 모국어인 화자가 영어로 작성한 학술논문 초록을 번역보편소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이다.

미 있는 경향을 찾아내기 위함(김혜영 2015: 53)인데, 비교코퍼스 기반 통계 중심 연구는 번역 과정에서 번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포착하지 못하고 번역문이 보이는 현상에 대한 결과론적 기술에 치우친다(이영훈 외 6인 2010)는 것이다. 비판적 시각 없는 정량적 자료의 해석은 번역 연구의 본질이 아닌 형식만을 중요시 하는 것(조준형 2015)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그러나 비교코퍼스의 정량적 분석에 대한 결과는 정성적 분석을 위한 출발점 역할(House 2011: 206)을 수행하며, 비번역문과 번역문 간 나타나는 형태별 빈도 차이는 많은 연구 주제를 던져준다(김혜영 2015: 70). 따라서 비교코퍼스의 정략적 분석으로 확인된 번역문, 비번역문의 차이를 병렬코퍼스에서 정성적으로 분석하면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김혜영 2015; House 2008).

그러나 일련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번역보편성에 대한 연구는 번역물의 특성을 규명하여 실무번역자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는 유용한 분석 틀을 제공해 준다. 보편성을 처음 주장한 베이커 역시 나중에는 “번역 패턴과 규칙 (patterns and regularities)”(Kruger 2002: 99, Xiao & Dai 2014 재인용)이라는 용어로 이를 설명하기도 했다. 본고는 번역보편성 연구의 의의는 보편성을 주장하거나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번역물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깊이 (Lee 2016: 37-8)하는 것이라는 견해와 맥을 같이한다. 보편성의 경우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한영 번역에서 아직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좀더 많은 장르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3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대표이사 서한

통합보고 관행에서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기존 연차보고서와 유사한 형태에 GRI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나 사회적 책임 부분을 보완하여(안상아 2013) 구성된다. 연차보고서는 외부인이 한 기업의 경영 현황, 실적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접근(방경원 2014; Bedard et al. 2012)하는 자료로, 보고서의 맨 앞 부분에는 대표이사가 이해관계자에게 보내는 서한 형태의 글이 실려 있다. 이는 기업 활동과 경영성과를 개괄하고(방경원 2014: 23)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동기를 부여(방경원 2015: 1)한다. 기업보고서 중 가장 많이 읽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왔음에도, 대표이사 서한의 언어적 측

면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Mobasher et al. 2013: 133). 주로 하일랜드(Hyland 1998)를 위시로 영어 대표이사 서한이 가진 대인관계적 언어자원을 탐구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비교적 최근의 관행이기에, 이에 대한 문화 간 차이에 대한 연구(Yu & Bondi 2017/2019; Sun et al. 2018 등) 역시 미진한 실정이며, 번역의 문제에 대한 고찰은 더욱 미진하다.

번역학에서 기업보고서는 문학번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으며, 상업번역(commercial translation)이라는 다소 모호한 범주 안에서 이루어진 일부 연구들은 주로 대표이사 서한이 가지는 설득적 성격과 문화적 차이에 주목했다(Olohan 2009). 대표이사 서한은 생산 의도와 목적이 분명한 비즈니스 텍스트로 번역된 텍스트 역시 해당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김현아 2011). 이를 위해서는 언어적 등가를 넘어서서 역동적 등가(Nida 2000)를 고려하고, 문화 필터(cultural filter)를 통한 내재적 번역(covert translation, House 1977/1997)이 요구되기에 번역문과 비번역문에 나타나는 문화 간 차이가 연구의 초점이 되었다(House 1977/1981/1997; Wawra 2007; Becher 2011; Junge 2011; 김현아 2011/2012/2013; Xiaoqin 2017; Huang & Rose 2018 등). 실증적 연구 결과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서한의 독자와 저자의 대인관계적 관계를 나타내는 언어자원으로, 미국 기업과 독일(House 1977/1981/1997; Becher 2011), 일본(Wawra 2007; Junge 2011), 중국(Xiaoqin 2017; Huang & Rose 2018) 기업 간의 비교 결과, 번역된 영어 서한보다 미국 기업의 영어 서한에서 인칭대명사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내의 경우 하일랜드(1998)의 메타담화를 통해 국내 기업의 번역문 서한, 미국 기업의 비번역문 서한을 비교한 김현아(2011/2012/2013)의 경우 번역가가 문화적 중재를 통해 we/our/us 등의 원문에 없는 인칭대명사를 추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다국어 기업보고서 발간이 그리 활발하지 않아 임의표집을 통한 제한된 샘플(연차보고서 10개, 지속가능성 보고서 1개 총 11개)을 대상으로 했으며 향후 번역본 발간의 증가를 예상했다. 2018년 말 현재 국내 주요 30대 기업¹¹⁾ 웹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총 26쌍의 한국어/영어 번역문

11) 30대 기업으로는 한국거래소에서 업종, 시가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여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30개 기업을 선정한 지수인 KTOP30 상장 30개 기업을 사용하였다.

데이터(통합보고 24개, 연차보고서 2개)를 확보할 수 있어서, 그 이후 발간 수와 관행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장르에서 영어 번역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AB 번역이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3. 연구방법

3.1 코퍼스 구축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이 발간하는 지속가능성 보고서 대표이사 서한의 원문(ST) 및 영어 번역문(TT), 이와 비교가능한 비번역(NTT) 텍스트를 수집하여 TT-NTT 비교코퍼스 및 ST-TT 병렬코퍼스를 구축하였다. 선정 기업의 대표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의 경우 업종, 시가총액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구성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DOW30) 상장 30개 기업, 이를 동일한 방식으로 벤치마킹하여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하는 KTOP30 상장 기업을 선정하였다. 이들 기업 웹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총 26쌍의 ST와 TT, 그리고 32개의 NTT¹²⁾를 확보할 수 있었다. 분석대상 텍스트는 각 기업의 2018년 12월 기준 최근 회계연도 자료만으로 구성했다. 한 기업의 대표이사 서한 텍스트 방식은 일정하기에 한 회기에 작성된 자료만 분석해도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방경원 2015: 5). 본 연구대상에 포함된 발간기업은 <표 2>와 같다.

<표 2> 분석대상기업 목록

크기	기업명
ST: 10,980 토큰	KB 금융그룹, LG 디스플레이, LG 전자, LG 화학, NAVER, POSCO, SK 이노베이션, SK 텔레콤, SK 하이닉스, 롯데케미칼, 미래에셋대우,
TT: 16,431 토큰	삼성 SDI,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화재, 신한지주, 아모레퍼시픽, 유한양행, 한국타이어, 현대건설,
(평균 632 토큰)	현대글로벌비스,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현대차

12) 미국의 경우 기업의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부문 담당 임원의 서한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에는 두 편 다 포함시켰다.

NTT: 26,635 토큰 (평균 823 토큰)	3M, American Express, Apple, Boeing, Caterpillar, Chevron, Cisco, Coca-Cola, The Walt Disney Company, DowDuPont*, ExxonMobil, General Electric, Goldman Sachs, The Home Depot, IBM, Intel, Johnson & Johnson, JPMorgan Chase*, McDonalds, Microsoft, Nike, Pfizer, Procter & Gamble, Travelers Companies, Inc., United Technologies*, Verizon, Visa, Wal-Mart*
----------------------------------	--

3.2 분석 절차

본고에서 사용되는 코퍼스에 대한 기본 통계량 및 분석범주의 빈도 추출은 워드스미스(WordSmith Tools 7.0)와 안티콘크(AntConc 3.5.7)을 활용하였다. 분석대상 텍스트는 품사 태깅(CLAWS 5 tagger)¹³⁾을 거쳤고, 통계 분석에는 R Commander 2.5.3을 사용하였다. 먼저 TT 26편과 NTT 32편 총 58편의 연구대상 서한을 각각 별도의 텍스트파일로 저장한 다음, 각각의 파일에 대해 모두 총 31개 분석범주¹⁴⁾에 대한 코딩 작업을 수행하였다. 대표이사 서한의 경우 각 텍스트의 크기가 제한적인 반면 기업별로 텍스트 특성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각 지표의 비중, 출현빈도를 TT, NTT 두 집단에서 추출하는 대신 다소 번거롭지만 58개의 개별 파일에 모두 코딩하고, 개별 텍스트들이 속한 두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을 택하여 제한된 코퍼스 크기를 보완하고자 했다.¹⁵⁾ 코딩 후 두 코퍼스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데이터 정규화 과정(이용훈 2016: 226-36)을 거치고 정규성 검정(Shapiro-Wilk 검정)을 실시하였다(이용훈 2016: 137). TT, NTT 모두 정규분포를 따르는 변수의 경우 독립표본 t-검정(이용훈 2016: 166-71)을, 정규분포가 아닌 변수는 비모수검정(이용훈 2016: 143)에 속하는 맨휘트니(Mann-Whitney) 검정(이용훈 2016: 175-84)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된 변수에 대해서는 병렬코퍼스를 분석, 차이 양상 및 원인을 고찰하고자 했다.

13) <http://ucrel.lancs.ac.uk/claws/>.

14) 31개 분석범주에는 <표 3> 중 문장부호 4개를 제외하고 명사화 11개, 단순화 11개, 규범화 5개, 평준화 2개 총 29개 및 코퍼스 기본 정보(토큰 수, 타입 수) 2개가 포함된다.

15) 단, 출현빈도가 낮은 규범화의 문장부호 지표는 부득이하게 TT, NTT 전체 빈도를 추출한 다음 10,000토큰 당 출현빈도를 계산하고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했다.

3.3 분석 틀

본고의 양적분석을 위한 틀은 <표 1>의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명시화 범주의 전달동사와 That 사용 양상의 경우, 전달동사 사용 비중이 낮은 본 장르의 특성 상 분석 범주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접속부사 비중만으로는 명시화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는 바, TT 중 2편에 대한 질적 분석을 추가했다. 규범화의 경우 목표어에 존재하지만 출발어에 존재하지 않는 문장부호와 구두점 사용양상을 추가하였다. 이외 명시화, 단순화, 규범화, 평준화에 대한 분석범주는 각 분석지표가 코퍼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상위 5개, 10개의 고빈도 어휘가 차지하는 비중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정량적 분석범주를 도입한 선행연구(고광운 & 이영희 2016; Goh et al. 2016; Lee 2016/2018/2019; Lee & Lee 2018)를 따랐음을 밝힌다. 기능어 목록은 네이션(Nation 2001)을 바탕으로 한 총 319개의 조동사, 전치사, 접속사, 대명사 등의 목록을, 접속부사 목록은 고광운 & 이영희(2016)와 동일한 116개 목록을 사용하였다. <표 3>는 본 분석틀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번역문의 양상이다.

<표 3>에 제시된 번역보편소 범주에 대한 양적 분석을 실시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항목에 대해 질적 분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본고는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대표이사 서한 장르에 명시화, 단순화, 규범화, 평준화가 나타나는지라는 연구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표 3> 분석 틀 및 예상되는 번역문 양상

보편소	분석범주	변수	번역문 양상
명시화 (11개)	접속부사 비중	전체	높다
		상위 1개-10개 접속부사 빈도	높다
단순화 (11개)	정보량	전체 기능어 비중	높다
		고빈도 기능어 비중(상위 5, 10, 20개)	높다
	어휘 다양성	STTR	낮다
		고빈도 어휘 비중(상위 10, 20, 50, 100개)	높다
		저빈도어휘	낮다
문장 길이	평균 문장 길이	짧다	
규범화 (5개)	문장부호 사용 양상	대시	과소사용
		콜론	과소사용

	어휘목록 비중	세미콜론	과소사용
		아퍼스트로피	과소사용
		전체 3-gram 비중	과다사용
		고빈도 3-gram(상위 5, 10, 20, 30, 50 개)	과다사용
평균화 (2 개)	표준편차	STTR ¹⁶⁾ SD	낮다
		문장 길이 SD	낮다

4. 연구 결과

4.1 명시화

명시화의 분석범주인 접속부사의 비율로 TT와 NTT를 분석한 결과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p < 0.05$)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였다.

〈표 4〉 명시화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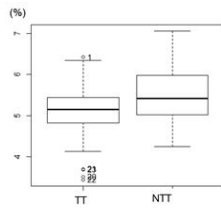
분석 지표	변수	코퍼스 종류	평균 (%)	표준 편차	정규성 검정	t-검정	
						t	p
접속 부사 비중	전체	TT	5.968	0.827	$p > 0.05$	-1.364	0.179
		NTT	6.253	0.743	$p > 0.05$		
	상위 4 개	TT	5.078	0.826	$p > 0.05$	-2.020	0.049
		NTT	5.481	0.657	$p > 0.05$		
	상위 5 개	TT	5.256	0.825	$p > 0.05$	-2.112	0.040
		NTT	5.671	0.631	$p > 0.05$		
	상위 6 개	TT	5.415	0.826	$p > 0.05$	-2.068	0.044
		NTT	5.824	0.644	$p > 0.05$		

명시화 분석 지표인 상위 1개에서 10개까지 접속부사 비중의 경우 모두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 t-검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상위 4, 5, 6개 접속부사 비중에 있어 TT, NTT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다음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빈도 접속부사의 비중은 <표 3>의 예상과는 반대로 오히려

16) STTR은 통상 1,000단어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연구대상 대표이사 서한의 경우 한 편이 1,000단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WordSmith 7.0에서 50단어마다 비율을 계산하도록 재설정했다.

비번역문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림 1 상위 6개 접속부사 비중 (번역문: 좌, 비번역문: 우)



고광윤과 이영희(2016: 128)의 경우에도 비번역문에서 접속부사 사용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세부 분석 결과 특정 접속부사의 과도한 사용이 원인이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대상 TT, NTT에서 가장 자주 사용된 접속부사는 and와 also였으며, 전체 코퍼스에서의 사용 비중도 유사했다. 다만 TT에서만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접속부사 “first”(1,000토큰 당 1.95회, NTT는 0.95회)의 경우 TT에서는 모두 “First,”의 형태로 정보 나열의 “첫째”, “우선”에 대응하는 번역으로 사용된 반면 NTT에서는 “But first,”와 같이 다른 접속부사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명시화의 경우 양적분석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에, 엑셀의 랜덤 함수 (RANDBETWEEN)로 ST 텍스트 2편을 추출, 이에 대한 질적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가지 현상이 관찰되었다. 첫째, 서한 2편의 ST는 각 21문장, 16문장이며 TT 23문장(분할 3회, TT_02), 18문장(분할 2회, TT_04)로 번역되었다. 문장 분할이 관찰된 총 5회 중 ST에 없는 정보가 추가되며 표층결속성이 강화되는 현상은 총 2회(“we believe that ~”, “This will help ~”, TT_04)만 나타났다. 둘째, ST에서 생략된 주어를 TT에서 “we” 또는 기업명으로 복원하는 의무적 명시화가 이루어졌다. 이 두 가지 모두 단순화와 연관되어 있는 바, 다음 장에서 부연 설명 한다.

4.2 단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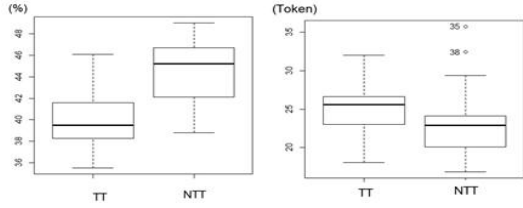
〈표 5〉 단순화 분석결과

분석 지표	변수	코퍼스 종류	평균 (%)	표준 편차	정규성 검정	t-검정		맨휘트니 검정	
						t	p	W	p
어휘 밀도	STTR	TT	82.017	1.734	p > 0.05	1.242	0.220	-	-
		NTT	81.519	1.866	p > 0.05				
기능어 비중	전체	TT	39.981	2.269	p > 0.05	-6.818	0.000	-	-
		NTT	44.503	2.782	p > 0.05				
	상위 5 개	TT	18.642	1.532	p > 0.05	-2.165	0.035	-	-
		NTT	19.572	1.737	p > 0.05				
	상위 10 개	TT	26.355	1.614	p > 0.05	-3.475	0.001	-	-
		NTT	27.976	1.939	p > 0.05				
상위 20 개	TT	32.813	1.921	p > 0.05	-3.845	0.000	-	-	
	NTT	34.830	2.064	p > 0.05					
고/저빈도 어휘 비중	상위 5 개	TT	18.994	1.508	p > 0.05	-1.645	0.106	-	-
		NTT	19.697	1.746	p > 0.05				
	상위 10 개	TT	28.579	1.688	p > 0.05	-1.695	0.096	-	-
		NTT	29.458	2.257	p > 0.05				
	상위 20 개	TT	39.144	1.965	p > 0.05	0.323	0.748	-	-
		NTT	38.959	2.405	p > 0.05				
저빈도 어휘	TT	34.936	5.597	p > 0.05	0.300	0.765	388	0.667	
	NTT	34.425	7.360	p < 0.05					
평균문장 길이 (토큰)	TT	25.083	3.203	p > 0.05	2.154	0.036	575	0.013	
	NTT	23.022	4.080	p < 0.05					

단순화 가설 분석 결과는 <표 3>의 예상과 정 반대로, NTT보다 TT의 어휘 밀도가 더 높고(82.01% > 81.59%), 기능어 비중이 낮으며(39.98% > 44.50%), 평균문장길이 또한 TT가 더 길었다(25.08 토큰 > 23.02 토큰). 고/저빈도 어휘 비중의 경우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통계검정 결과 유의미한 항목은 기능어 (전체비중 및 상위 5/10/20개 비중) 및 평균 문장길이였다(그림 2 참조).¹⁷⁾

17) <표 4>의 평균문장길이의 경우 t-검정, 맨휘트니 검정 모두 p 값이 유의미하여, 정규분포 여부에 관계없이 TT, NTT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기능어 비중(좌), 평균문장길이(우)



분석대상 번역문 코퍼스에서 기능어의 비중이 낮게 나타난 것은 명시화 분석 결과와도 연관이 있다. 번역 과정에서 접속부사를 첨가하여 명시화가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기능어의 비중이 높아진다(김정우 2016: 8). 본고에서는 반대로 번역문의 접속부사와 기능어 비중이 비번역문보다 낮게 나타났다.

기존 연구 결과에서도 전체 기능어 비중이 오히려 비번역문보다 높게 나타난 사례(교광윤 & 이영희 2016: 123)가 존재하며, 문장길이 역시 소셜 한영번역의 경우 보편소 지표로 타당하지 않다(이창수 2014b)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질적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가지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번역 과정에서 문장 분할이 빈번하게 일어났는데(ST는 599문장, TT는 646문장), 이 과정에서 다음 예문과 같이 접속부사가 추가된 명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존재했다(4.1 명시화 참조).

(원문) “그룹의 사업영역을 결합한 ‘One-stop 서비스’를 체질화하고, 고객이 인정하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을 시도하겠습니다.” (ST_02)

(번역) “At XXXXX, we have combined our business capabilities for one-stop service platform for our customers. (문장 분할) We will never stop trying new ideas and a better approach to put ourselves ahead of the competition.” (TT_02)

영어에서 한글 방향으로 번역된 텍스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번역 한국어 텍스트에 비해 접속부사 빈도가 높는데(김정우 2012: 35), 이는 출발어 영어의 특성일 수 있다. 역으로, 비번역 한국어의 접속부사의 빈도가 비번역 영어에 비

해 낮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한영 번역의 경우 출발어 간접으로 접속부사 출현 빈도가 낮아졌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어로 작성된 대표이사 서한에 접속부사가 적게 사용되어 있다면, 번역과정에서 일부 명시화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여전히 접속부사 비중이 비번역문보다 낮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ST 문장 길이가 매우 긴 경우가 다수 존재했다. 번역 과정에서 문장 분할이 빈번하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번역문에 의해 길이가 길 가능성이 존재한다. 두 가지 모두 원문 간섭(Toury 1995) 또는 비침(Teich 2003)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원문) “국내 XXXXX를 시작으로 한 자산 공유를 전 세계 모든 사업장으로 적극 확산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공유인프라를 통하여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적극 실현하고 XXXXX의 차별화된 가치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ST_08)

(번역) “XXXXX is committed to business model innovation, in accordance with better positioning ourselves for stronger global growth, and enhance our corporate value. (문장 분할) The company will aggressively push forward with strategic investments to expand new businesses and boost global growth.” (TT_08)

셋째, NTT의 높은 기능어 비중은 영어 대표이사 서한 장르의 특성인 인칭대명사의 빈번한 사용이 원인으로 보인다. 위 번역문(TT_08)의 경우 총 39단어 중 13개의 기능어가 사용되었고(33.3%), 아래 비번역문 예문(NTT_05)의 경우 총 29단어 중 16개의 기능어가 사용(55.2%)된 것을 볼 수 있다.

“This is also part of our commitment to our customers who want to improve their operations and competitiveness and realize the full value of their assets on job sites.” (NTT_05)

NTT 예문의 경우 인칭대명사(our, their)의 잦은 사용이 눈에 띈다. 저자인 기업의 대표가 we, our, us 등의 인칭대명사로 자신을 지칭함으로써 독자와 일체감을 추구하거나, 독자를 you, your로 지칭함으로써 독자 참여를 유도하고 설

득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다(House 1977/1997; Hyland 1998; Wawra 2007; Junge 2011; 김현아 2011/2012/2013; Huang & Rose 2018). 이러한 목표 장르의 규범을 충족하기 위해 한글로 작성된 대표이사 서한을 영어로 번역하는 경우 원문에 “우리”, “당사” 등의 주어가 생략된 경우에도 “we” “our company” 등으로 주어를 복원하는 문화적 중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김현아 2011: 240). 본 연구대상 코퍼스(4.1 명시화 참조)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상기 예문(TT_08)처럼 인칭대명사 대신 기업명을 주어로 사용한 경우도 다수 존재했다. 이러한 경우가 많을수록 내용어 비중은 높아진다. 이에 TT, NTT 간 인칭대명사 사용양상을 확인해 보았다(<표 6> 참조).

<표 6> 인칭대명사 사용 양상(10,000단어 당 출현빈도)

구분	1 인칭 단수	1 인칭 복수	2 인칭	3 인칭 단수	3 인칭 복수	χ^2	p
NTT	34.9	623.6	23.3	57.8	54.4	38.416	0.000
TT	28.0	366.3	43.8	17.0	14.6		

확인 결과, 2인칭(you, your)을 제외하고는 모두 NTT에서 유의미하게 인칭대명사의 출현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TT에서 유일하게 빈도가 높았던 2인칭 대명사의 경우 단 3건을 제외하고 모두 서한을 마무리하는 감사 인사에만(Thank you, thank you for your interest 등)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I invite you to ~”(NTT_23), “I will share with you ~”(NTT_25) 등 다양한 맥락에서 독자를 지칭하는 NTT와 크게 차이가 있어, 향후 한영 번역 교육 및 실무에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3 규범화

규범화 분석 지표 중 어휘목록의 경우 상위 5/10/20개 및 전체 3그램 비중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¹⁸⁾ 번역보편소의 기본 가설에서 상정하는 바와 유일하게 일치했다. <표 7>은 규범화 분석지표의 분석결과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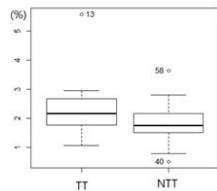
18) 최소 2회 이상 출현하는 3그램을 중 빈도수가 가장 높은 순서대로 상위 5개, 10개, 20개, 30개, 50개의 비중 및 전체 3그램 비중을 분석범주로 삼았다.

그림 3은 상위 5개 3그램의 비중을 나타낸다.

〈표 7〉 규범화 분석결과: 어휘목록 비중

분석 지표	변수	코퍼스 종류	평균 (%)	표준 편차	정규성 검정	t-검정		맨휘트니 검정	
						t	p	W	p
3 그램 비중	전체	TT	3.484	2.542	p < 0.05	-2.031	0.047	271.500	0.024
		NTT	4.731	2.133	p > 0.05				
	상위 5개	TT	1.597	0.759	p < 0.05	-2.771	0.008	236.500	0.005
		NTT	2.201	0.876	p > 0.05				
	상위 10개	TT	3.324	1.126	p > 0.05	-2.648	0.011	-	-
		NTT	2.431	1.443	p > 0.05				
	상위 20개	TT	4.087	1.603	p > 0.05	-2.887	0.006	-	-
		NTT	2.825	1.720	p > 0.05				
	상위 30개	TT	4.331	1.871	p > 0.05	-2.837	0.006	-	-
		NTT	2.964	1.764	p > 0.05				
	상위 50개	TT	4.416	1.959	p > 0.05	-2.528	0.015	-	-
		NTT	3.135	1.870	p > 0.05				

그림 3 상위 5개 3그램 비중



질적 분석을 위해 빈도 수 상위 5개 3그램에 대해 TT, NTT에서의 사용 양상을 확인해 보았다. TT의 최빈도 3그램 ‘in order to’, ‘would like to’, ‘I would like’, ‘as well as’, to become a’의 경우 NTT에서 사용 빈도가 각각 0회, 1회, 1회, 12회, 19회(번역문: 21회, 17회, 15회, 14회, 13회)에 지나지 않아 번역문에서만 과다사용되는 상투어일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NTT의 최빈도 3그램인 ‘around the world’, ‘the world’s’, ‘will continue to’, ‘and we are’, ‘our commitment to’ 역시 TT에서 사용 빈도가 각각 3회, 9회, 11회, 0회, 4회(비번역문: 37회, 22회, 20회, 16회, 14회)에 그쳐, 두 코퍼스 간 사용 양상의 차

19) ‘as well as’의 경우 번역문 14회, 비번역문 12회로 큰 빈도차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가 확인되었다. 이창수(2014b)는 규범화 항목의 어휘목록이 번역문의 자연스러움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번역문이 도착어의 표준적 구문에 과다하게 의존하여 표현의 다양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한영 번역 교육에서 중요한 이슈이므로, 비번역문 코퍼스를 교육에 활용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문장부호 사용 양상에서도 번역문의 특징이 나타났다(<표 8> 참조).

<표 8> 문장부호 사용양상의 번역문-비번역문 간 차이

문장부호		TT		NTT		χ^2	p
		출현 빈도	10,000 토큰 당	출현 빈도	10,000 토큰 당		
대시 콜론 세미콜론	대시	0	-	146	54.82	23.825	0.000
	콜론	5	3.04	62	23.28		
	세미콜론	18	10.95	64	24.03		
아포스트로피	소유격	100	60.85	124	46.56		
	축약형	1	0.61	148	55.57		

영어는 문장부호를 폭넓게 사용하는 언어인 반면, 한국인은 영어 문장을 쓸 때 문장부호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김도훈 2011: 5). 문장부호 중 한국어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대시, 콜론, 세미콜론과 번역문에 과소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축약형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아포스트로피의 사용 빈도를 추출한 결과, TT에서 이들 문장부호의 출현빈도가 극히 낮았다. 통계 검정을 위해 대시, 콜론, 세미콜론을 한 범주, 소유격과 축약형의 아포스트로피를 다른 한 범주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TT에서 해당 문장부호가 유의미하게 과소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영어에서 대시는 단절 및 흐름의 변화, 보충 및 부연 설명, 동격 및 강조, 대조, 예시 및 열거, 단어 생략, 머뭇거림 표시의 7가지 기능을 수행하여 극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데 쓰이는 반면 이에 해당하는 한글의 줄표는 보충 및 부연, 정정 또는 변명의 용례로 쓰이고 빈도가 높지 않다(김도훈 2011: 62).

대시 이외에 과소사용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항목은 축약형의 아포스트로피이다. 축약형과 소유격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아포스트로피의 경우 축약형 사용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축약형의 과소사용은 울로한(2003/200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영어로 번역된 일본 금융회사 연차보고서 대표이사 서한의 경우, 비번역문에는 빈번하게 쓰이는 축약형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Wawra 2007). 확인을 위해 축약형이 나타난 동사를 콘코더스 추출한 후 세부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NTT의 경우 축약형 출현 빈도는 총 872회로, 모든 동사의 축약형('m, 're, 's, 've, 'd, 'll, 't)이 거의 모든 파일에서 고루 사용되고 있어 해당 장르에서의 규범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TT의 경우 전체 코퍼스에서 단 1건('m)만이 축약형이어서 목표 장르 규범과 다소 거리가 있어, 향후 실무 및 교육에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4 평준화

평준화 분석지표로 분석한 번역문, 비번역문의 STTR의 표준편차는 비번역문이 근소한 차로 높았고, 평균문장길이 표준편차의 경우 오히려 번역문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평준화는 실증연구가 가장 적은 보편소 가설로, 이에 반하는 한영 번역 실증연구 결과도 존재한다(고광운 & 이영희 2016). 샤오와 다이(Xiao & Dai 2014)는 번역보편소의 기타 가설, 즉 명시화, 규범화, 단순화의 특성이 번역물에 나타나게 되는 것 자체가 규범화의 증거라고 역설하였다. 규범화에서 상정하는 번역물의 특성이 비번역문에 비해 높은 균질성(homogeneity, Laviosa 2002: 72)임을 고려할 때 타당한 주장이기에 향후 연구에서 평준화에 대한 정성적 분석, 분석지표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10〉 평준화 분석결과

분석 지표	변수	코퍼스 종류	평균 (%)	표준 편차	정규성 검정	t-검정		맨휘트니 검정	
						t	p	W	p
표준 편차	STTR SD	TT	16.109	1.749	p > 0.05	-0.815	0.418	-	-
		NTT	16.517	2.060	p > 0.05				
	평균문장 길이 SD	TT	11.293	2.530	p < 0.05			477	0.344
		NTT	10.876	3.499	p < 0.05				

5. 결론 및 시사점

한국어를 출발어, 영어를 도착어로 번역된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대표이사 서한과 비번역문을 번역보편소 네 가지 범주인 명시화, 단순화, 규범화, 평준화 지표로 비교한 결과, 규범화만이 기존 가설과 일치했다. 번역문에서 정형화된 어휘묵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번역문보다 높았는데, 이는 번역의 자연스러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문장부호 또한 목표 장르의 관행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던 명시화와 단순화 항목의 경우, 비번역문에 비해 번역문의 상위 4/5/6개 접속부사 비중은 높았고(명시화), 문장 길이는 길고 기능어 사용 비중이 낮아(단순화) 기존 번역보편소 가설과는 반대의 양상이 나타났다.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두 가지 원인을 추정할 수 있었다. 첫째, 출발어의 영향이다. 출발 텍스트의 긴 문장 길이, 영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현 빈도가 낮은 접속부사, 인칭대명사가 잘 사용되지 않는 특성이 기능어 비중을 낮게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축약형 동사 및 문장부호 때문에 규범화 지표인 문장부호가 과소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대상 장르 특성인 빈번한 인칭대명사 사용 양상이 번역문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다 목표문화의 장르 특성을 살리기 위한 번역가의 중재(mediation)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출발어와 목표어 중 어떠한 규범에 가깝게 번역할 것인지는 번역학의 오랜 난제로 이에 대한 수많은 견해가 존재하며, 무조건 번역문에서 원문의 특성을 지우고 비번역문과 유사한 텍스트를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고의 연구대상과 같이 해당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설득하는 특정한 목적을 가진 기업보고 장르의 경우, 번역문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목표 장르의 언어사용 규범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고의 요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향후 한영 번역 교육 및 실무에서 고려되어야 할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어에는 없거나 사용 빈도가 낮지만 영어에서 빈번하게 출현하는 문장부호와 그 다양한 기능에 대한 고려가 이

루어져야 한다. 둘째, 한글 원문에 없는 주어를 번역문에서 복원하거나 기업을 지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좀더 다양한 맥락에서 인칭대명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표준적 구문의 과도한 사용은 번역문의 자연스러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교육 및 실무에서 이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와 같이 대표성이 있는 소규모 비번역문 코퍼스를 활용, 표현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번역보편소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뎀(Pym 2008)은 모국어가 아닌 방향으로 번역하는 경우 부자연스러운 언어를 사용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고빈도로 출현하는 형태에 의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할버슨(Halverson 2003)은 번역가의 의사 결정에서 목표언어에서 두드러지게(salient) 나타나는 형태에 이끌리는 인지적 과정에 의해 번역보편소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본고의 연구 대상과 같이 목표어의 규범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번역에서 이와 같은 설명은 설득력을 가진다.

본고에서 고찰한 번역문의 양상은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하위장르인 대표이사 서한, 그리고 한국어에서 영어 방향의 번역에만 국한된다. 또한 번역보편소의 각 가설에 대한 분석범주 역시 전체적인 범주라고는 볼 수 없다. 특히 명시화의 경우 접속부사라는 한 가지 범주만을 다루고 있어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향후 코퍼스의 확장과 질적 분석을 통해 연구대상 장르의 언어적 특성을 보다 깊이 있게 규명하는 작업과 텍스트 외적 맥락에 대한 조망, 번역 과정과 번역가 연구 등은 후속연구의 몫으로 남겨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번역문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상업번역에서 통용되는 실제 텍스트를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한영 번역 교육과 실무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참고문헌

- 고광운, 이영희 (2016) 「한국 신문의 영어 번역에 나타난 번역 보편소의 코퍼스 기반 분석」, 『비교문화연구』 45: 109-43.
 김도훈 (2011) 『문장부호의 번역학』, 서울: 한국문화사.

- 김성휘 (2017. 7. 23) 「기업 사회적 책임 공시법, 국회 정무위 통과」, 『머니투데이』, 2019년 8월 1일 검색.
- 김정우 (2012) 「한국의 번역학 연구와 국어학의 몇 과제」, 『우리말글』 56: 1-41.
- 김정우 (2015) 「번역 보편소의 한 사례: 텍스트 유형에 따른 명시화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3: 29-48.
- 김정우 (2016) 「번역 보편소들의 상호 의존성」, 『번역학연구』 17(1): 7-29.
- 김현아 (2011) 「<주주에게 보내는 편지>의 번역 및 비번역 텍스트의 텍스트 공손성 분석」, 『통번역학연구』 15(1): 221-249.
- 김현아 (2012) 「번역 및 비번역 <주주에게 보내는 편지>에 구축된 저자와 독자의 상호작용: 텍스트적 메타담화 분석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6(2): 115-37.
- 김현아 (2013) 『한영번역 텍스트의 공손성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영 (2009) 「텍스트 유형에 따른 번역 보편소의 실현 양상」, 『통번역교육연구』 7(2): 104-20.
- 김혜영 (2015) 「비교 코퍼스에 기반한 국내 번역 연구의 현황 및 제언」, 『통번역교육연구』 13(3): 51-75.
- 방경원 (2014) 「한국기업과 독일기업이 주주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용한 비유 대상 비교-전문언어 텍스트종류 연구」, 『독일언어문학』 64: 23-40.
- 방경원 (2015) 「텍스트내용과 텍스트종류의 적합성-주주들에게 보내는 글의 텍스트종류를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68: 1-20.
- 안상아 (2013) 「국내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현황 및 분석」,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9년 8월 1일 검색.
- 이영훈, 김혜영, 고경은, 김태준, 이은정, 조혜란, 최현아. (2010) 「비교코퍼스에 기반한 불한번역 문학텍스트의 언어적 특성 연구」, 『번역학연구』 11(1): 161-90.
- 이용훈 (2016) 『R을 활용한 코퍼스언어학과 통계학』, 서울: 한국문화사.
- 이창수 (2011) 「엔그램(n-gram) 분석을 통한 번역한국어와 비번역한국어간의 어휘뭉음 유형 차이 사례 연구」, 『통번역학연구』 15(1): 317-40.
- 이창수 (2014a) 「다차원통계분석법을 활용한 번역보편소 사례연구」, 『번역학연구』 15(3): 211-32.

- 이창수 (2014b) 「번역보편소 언어지표와 번역의 자연스러움과의 상관관계 연구」, 『통역과 번역』 16(1): 129-48.
- 정호정 (2003) 「B언어로의 번역과 코퍼스를 이용한 교육방법」, 『통번역교육연구』 1: 53-70.
- 조준형 (2015) 「번역 연구에서 코퍼스의 본질」, 『번역학연구』 16(2): 293-316.
- 최희경 (2016) 「한영 문학 번역 문체 연구: 코퍼스 기반 분석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7(3): 193-216.
- Baker, Mona (1993) ‘Corpus Linguistics and Translation Studies: Implications and Applications’, in Mona Baker et al. (eds) *Text and Technology: In Honour of John Sinclair*,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233-50.
- Baker, Mona (1995) ‘Corpora in Translation Studies: An Overview and Som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Target* 7(2): 223-43.
- Baker, Mona (1996) ‘Corpus-Based Translation Studies: The Challenges That Lie Ahead’, in Harold Somers (ed) *Terminology, LSP and Translation*,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175-86.
- Bartlett, Susan A. and Roy A. Chandler (1997) ‘The Corporate Report and The Private Shareholder: Lee and Tweedie Twenty Years on’, *British Accounting Review* 29(3): 245-61.
- Becher, Viktor (2010) ‘Abandoning the Notion of ‘Translation-Inherent’ Explicitation: Against a Dogma of Translation Studies’,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11(1): 1-28.
- Becher, Viktor (2011) ‘Explicitation and Implication in Translation. A Corpus-Based Study of English-German And German-English Translations of Business Texts’, Ph. D. dissertation, Hamburg: Universität Hamburg.
- Bedard, Jean C., Steve G. Sutton, Vicky Arnold, and Jillian R. Phillips (2012) ‘Another Piece of the “Expectations Gap”: What Do Investors Know about Auditor Involvement with Information in the Annual Report?’, *Current Issues in Auditing* 6(1): 17-31.
- Blum-Kulka, Shoshana (2004) ‘Shifts of Cohesion and Coherence in

- Translation' in Lawrence Venuti (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 New York: Routledge, 290-305.
- Blum-Kulka, Shoshana, and Eddie A. Levenston (1978) 'Universals of Lexical Simplification', *Language Learning* 28(2): 399-415.
- Breton, Gaetan, and Richard J. Taffler (2001) 'Accounting Information and Analyst Stock Recommendation Decisions: A Content Analysis Approach', *Accounting and Business Research* 31(2): 91-101.
- Chesterman, Andrew (2004) 'Beyond the Particular' in Anna Kujamaki and Mauranen Pekka (eds) *Translation Universals: Do They Exist?*, Amsterdam: John Benjamins, 33-49.
- Frawley, William (1984) 'Prolegomenon to a Theory of Translation' in William Frawley (ed) *Translation: Literary, Linguistic and Philosophical Perspectives*, London: Associated University Press, 159-75.
- Feng, Haoda, Ineke Crezee, & Lynn Grant (2018) 'Form and Meaning in Collocations: A Corpus-driven Study on Translation Universals in Chinese-to-English Business Translation. *Perspectives* 26(5), 677-690.
- Goh, Gwang-yoon, Younghee Cheri Lee, and Dongyoung Kim (2016) 'A Corpus-Based Study of Translation Universals in Thesis/Dissertation Abstracts', *Korea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6(4): 819-49.
- Halverson, Sandra (2003) 'The Cognitive Basis of Translation Universals', *Target* 15(2): 197-241.
- Hansen-Schirra, Silvia (2011) 'Between Normalization and Shining-Through', in Svenja Kranich, Viktor Becher, Steffen Hoder, and Juliane House (eds) *Multilingual Discourse Production: Diachronic and Synchronic Perspectives*,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135-62.
- House, Juliane (1977/1997) *A Model for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A Model Revisited*, second edition, Tübingen:Gunter Narr Verlag.
- House, Juliane (2008) 'Beyond Intervention: Universals in Translation?', *Trans-Kom* 1(1): 6-19.

- House, Juliane (2011) 'Using Translation and Parallel Text Corpora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Global English on Textual Norms in Other Languages', in Alert Kruger, Kim Wallmach, and Jeremy Munday (eds) *Corpus-Based Translation Studies: Research and Applications*, London and New York: Continuum, 187-208.
- Huang, Ying, and Kate Rose (2018) 'You, Our Shareholders: Metadiscourse in CEO Letters from Chinese and Western Banks', *Text and Talk* 38(2): 167-90.
- Hyland, Ken (1998) 'Exploring Corporate Rhetoric: Metadiscourse in the CEO's Letter', *The Journal of Business Communication* 35(2): 224-44.
- IIRC (2013) International <IR> Framework.
- Junge, Svenja (2011) 'Corporate Rhetoric in English and Japanese Business Reports', in Svenja Kranich, Viktor Becher, Steffen Höder, and Juliane House (eds) *Multilingual Discourse Production: Diachronic and Synchronic Perspectives*,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209-32.
- Kajzer-Wietrzny, Marta (2015) 'Simplification in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16(2): 233-53.
- Kajzer-Wietrzny, Marta (2018) 'Interpretese vs. Non-native Language Use: The Case of Optional That', in Mariachiara Russo, Bart Defrancq, & Claudio Bendazzoli (eds) *Making Way in Corpus-based Interpreting Studies* Singapore: Springer. 97-113.
- Katan, David (2003) *Translating cultures: An introduction for translators, interpreters, and mediators*, second edition, Manchester and Northampton: St. Jerome.
- Kenny, Dorothy (1998) 'Creatures of Habit? What Translators Usually Do with Words', *Meta* 43(4): 515-23.
- Kim, Jungsun (Sunny), HakJun Song, Choong-Ki Lee, and Jin Young Lee (2017) 'The Impact of Four CSR Dimensions on a Gaming Company's Image and Customers' Revisit Inten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61: 73-81.

- Klaudy, Kinga (1996) 'Back-Translation as a Tool for Detecting Explication Strategies in Translation', in Kinga Klaudy, José Lambert, and Soár Anikó (eds) *Translation Studies in Hungary*, Budapest: Scholastica, 99-114.
- Koskinen, Kaisa (2008) *Translating Institutions: An Ethnographic Study of EU Translation*, Abingdon: Routledge.
- Laviosa-Braithwaite, Sara (1996) 'The English Comparable Corpus (ECC): A Resource and a Methodology for the Empirical Study of Translation', Ph. D. dissertation, Manchester: University of Manchester.
- Laviosa, Sara (1997) 'How Comparable Can Comparable Corpora Be?', *Target* 9(2): 289-319.
- Laviosa, Sara (1998) 'Core Patterns of Lexical Use in a Comparable Corpus of English Narrative Prose', *Meta* 43(4): 557-70.
- Laviosa, Sara (2002) *Corpus-Based Translation Studies: Theory, Findings, Applications*. Amsterdam: Radopi.
- Lee, Younghee Cheri (2016) 'The Hallmarks of Expert L2 Writers' Texts Viewed through the Prism of Translation Universals: A Corpus-Based Approach to English Research', Ph. D. dissertation, Seoul: Yonsei University.
- Lee, Younghee Cheri (2018) 'The Hallmarks of L2 Writing Viewed through the Prism of Translation Universals', *Linguistic Research* 35(Special Edition): 171-205.
- Lee, Younghee Cheri (2019) 'Spotting Non-Nativeness in L2 Texts: A Statistical Approach to Translationese',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5(1): 367-88.
- Lee, Younghee Cheri, and Yong-hun Lee (2018) 'A New Angle on L2 Writers' Texts: A Statistical Approach to Translation Universals', in *Proceedings of the 32nd Pacific-Asia Conference on Language, Information, and Computation (PACLIC-32)*, Hong Kong: PACLIC.

- Malmkjær, Kristen (1997) 'Punctuation in Hans Christian Anderson's Stories and in Their Translation into English', in Fernando Poyatos (ed) *Nonverbal Communication and Translation: New Perspectives and Challenges in Literature*,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jamins, 151-62.
- Mauranen, Anna (2000) 'Strange Strings in Translated Language: A Study on Corpora' in Maeve Olohan *Intercultural Faultlines: Research Models in Translation Studies*, St Jerome, 119-41.
- Mobasher, Atefeh, Afida Mohamad Ali, Faiz Sathi Abdullah, and Chan Mei Yuit (2013) 'Review Of Studies on Corporate Annual Reports During 1990-2012',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 English Literature* 2(2): 133-141.
- Nation, Paul (2001)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ida, Eugene (2000) 'Principles of Correspondence', in Lawrence Venuti (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 New York: Routledge, 153-67.
- Olohan, Maeve (1996) 'Spelling out the Optionals in Translation: A Corpus Study', *UCREL Technical Papers* 13: 423-32.
- Olohan, Maeve (2003) 'How Frequent Are the Contractions?: A Study of Contracted Forms in the Translational English Corpus', *Target* 15(1): 59-89.
- Olohan, Maeve (2004) *Introducing Corpora in Translation Studi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Olohan, Maeve (2009) 'Commercial Translation', in Mona Baker and Gabriela Saldanha (eds)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second edi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40-43.
- Olohan, Maeve, and Mona Baker (2000) 'Reporting 'That' in Translated English: Evidence of or Subliminal Processes of Explicitation',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1(2): 141-58.

- Øverås, Linn (1998) 'In Search of the Third Code: An Investigation of Norms in Literary Translation', *Meta* 43(4): 557-70.
- Park, Myongsu, and Shinwoong Lee (2014) 'Corpus-Based Investigation into Reporting That in Translated English Editorials', *Linguistic Research* 6: 199-217.
- Pym, Anthony (2005) 'Explaining Explicitation', in Kinga Klaudy, Krisztina Károly, and Ágota Fóris (eds) *New Trends in Translation Studies: In Honour of Kinga Klaudy*, Budapest: Akadémiai Kiadó, 29-34.
- Pym, Anthony (2008) 'On Toury's Laws of How Translators Translate', in Anthony Pym, Miriam Shlesinger, and Daniel Simeoni (eds) *Beyond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John Benjamins, 311-28.
- Sun, Ya, Guangsa Jin, Yingli Yang, and Jingjing Zhao (2018) 'Metaphor Use in Chinese and American CSR Reports', *IEEE Transactions on Professional Communication* 61(3): 295-310.
- Teich, Elke (2003) *Cross-Linguistic Variation in System and Text: A Methodology for the Investigation of Translations and Comparable Texts*, Berlin & New York: Mouton de Gruyter.
- Tirkkonen-Condit, Sonja (2004) 'Unique Items-over-or under-Represented in Translated Language?', in Anna Mauranen and Pekka Kujamäki (eds) *Translation Universals: Do They Exist?*,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177-86.
- Toury, Gideon (1995)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and Beyond*,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Wawra, Daniela (2007) 'On Course for the Next Stage of Success: The Annual Report of US and Japanese Companies', in Cornelia Ilie (ed) *The Use of English in Institutional and Business Settings: An Intercultural Perspective*, Switzerland: Peter Lang Bern, 127-46.
- Xiao, Richard (2010) 'How Different Is Translated Chinese from Native Chinese?: A Corpus-Based Study of Translation Universals', *International Journal of Corpus Linguistics* 15(1): 5-35.

- Xiao, Richard, and Guangrong Dai (2014) 'Lexical and Grammatical Properties of Translational Chinese: Translation Universal Hypotheses Reevaluated from the Chinese Perspective', *Corpus Linguistics and Linguistic Theory* 10(1): 11-55.
- Xiaoqin, Liu (2017) 'Exploring the Rhetorical Use of Interactional Metadiscourse: A Comparison of Letters to Shareholders of American and Chinese Financial Companies', *English Language Teaching* 10(7): 232-41.
- Yu, Danni, and Marina Bondi (2017) 'The Generic Structure of CSR Reports in Italian, Chinese, and English: A Corpus-Based Analysis', *IEEE Transactions on Professional Communication* 60(3): 273-91.
- Yu, Danni, and Marina Bondi (2019) 'Textual Voices in Corporate Reporting: A Cross-Cultural Analysis of Chinese, Italian, and American CSR Reports',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Communication* 56(2), 173-97.

[Abstract]

Translation Universals in Translated CEO Letters in Sustainability Reports

Yim, Ji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sheds light on Translation Universals in translated CEO letters in sustainability reports, which have been receiving growing attention under the new regulatory environment and recently-rising practice of integrated reporting. Taking a comparable corpus approach by coding 58 translated and non-translated letters published by KTOP30- and DOW30-listed firms with 31 variables representing four translation universals (explicitation, simplification, normalization, and levelling-out), it is found that letters translated from Korean into English exhibit significantly lower function words, lower connectives, and higher mean sentence length, all of which contradict to the existing TU hypotheses. The result of normalization is in line with the TU hypothesis where translated texts have a higher proportion of recurring lexical bundles. Also found is significant underrepresentation of punctuations in translated CEO letters. All of the differences in this study, whether conforming to TU hypotheses or not, reveal the influence of the corporate reporting genre as well as source language. This has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ranslation from L1 to L2, which is often the norm for professional translators in this genre in Korea.

▶ Key Words: corpus linguistics, translation universals, CEO letters, sustainability report, L1 to L2 translation, business translation

▶ 주제어: 지속가능성보고서, 대표이사서한, 코퍼스연구, 한영번역, 제도번역

임진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박사과정

jy2812@gmail.com

관심분야: 코퍼스기반 번역연구, 제도번역, 번역사회학, 통번역 교육

논문투고일: 2019년 11월 3일

심사완료일: 2019년 12월 2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5일